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미래... 오감이 깨어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7

8일~10월 23일 46일간
33개국 디자이너 485명
367개 기업 1300여 작품

제7회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6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행사는 4개의 본전시회를 비롯해 특별전(3개), 국제 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특별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33개 국가에서 디자이너 485명과 367개 기업이 모두 1300여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둘러보는 게 좋을 듯하다.



오세현 디자이너의 '디자인 공유 프로젝트-오픈 카이트'

관람 방법

오전9시~오후6시 오픈
도슨트 하루 5차례 운영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8일~10월 23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시 기간 중 쉬는 날은 없다. 티켓 가격은 일반 1만2000원, 청소년(만 13~18세) 6000원, 어린이(만 4~12세) 4000원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4차 미디어아트', 광주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리는 'Becoming innovato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디자인 비즈니스'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을 돕는 도슨트는 하루 5차례(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씩 운영하며 단체 관람객은 사전에 예약하면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전시·특별전

4개의 본전시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오프닝 전시 성격인 '오래된 미래'(the futures from the past)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과거에 꿈꿨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또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색연이다.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영준 계열예술대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5개국 디자이너 12명의 작품 40개가 배치된다.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트웨이츠의 '염소인간' 등이 눈에 띈다.

메인 전시로 꼽히는 '미래를 디자인하자'(Design! the Future)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 키워드인 '자율주행'과 '친환경'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전시다. 전시는 '예상...Mobility in the Future'를 컨셉으로 4차 혁명 시대의 모빌리티 미래상을 제안한다.

전시 큐레이터는 GM 미국디자인센터 리드 디자이너, 기아차 디자인센터 책임 연구원 출신의 송인호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가 맡았다.

전시에는 영국 IMDC 디렉터 대일 해로우의 자율주행 디자인 컨셉 '게이트 웨이', 스페인 디자이너 하비에르의 'autonoME' 등 국내외 디자이너 25명과 12개 기업에서 26개 아이템을 선보인다.

미국 테레사 단코비치의 '마실 수 있는 책',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 필립스의 '미래의 주방'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기아자동차 디자인센터 소속 디자이너 120명은 '미래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아날로그 삶'을 테마로 '2017 디자인 아트웍스' 전시도 마련한다.

'미래를 창업하자'(Startups in the Future)는 산업 자동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다. 미래 창업 비전을 제시하고, 3D 프린팅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1인 디자인 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에서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와 매칭하는 '벤처창업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지난 2009년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은병수 은카운슬 대표가 큐레이터를 맡은 '아시아 더 퓨처'(ASIA_The Future)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독창적 문화를 담은 디자인 작품을 전시한다.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권 10개국, 참여작가 24명, 22개 기업(브랜드)에서 필립핀 전통가옥 '니파 핫(Nipa Hut)', 동남아시아의 의상 '사롱(Sarong)' 등 350개 아이템을 선보인다. 또

미래자동차·창업 등 4개 본전시

문화전당·신안 태평염전 등 특별전

심포지엄·학술대회 담론의 장도

아시아를 상징하는 100여 가지의 재료, 패턴, 색상, 샘플, 사진, 소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 오브제 컬렉션 '아시아 엘리먼트 100가지 소품들(Asian Element_100 Objects)'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4차 미디어 아트'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과 예술, 디자인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백남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 왕리엔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술관 야외광장에서는 '빛'을 주제로 한 특별프로젝트 'HALO'가 진행된다. '2017~18 한국·영국 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해 추진한 기획이다. 한국과 영국 작가가 구성된 '김지연칩스' 팀이 참여해 250개의 거울을 활용, 지름 2m 크기 인공 태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8월 24일 시작해 20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전 'Becoming Innovators(한국 디자인, 혁신가로 거듭나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50선을 만나는 자리다.

그밖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꼽히는 신안군 태평염전 인근 소금박물관에서는 '자연과 미래'를 주제로 이이남 작가의 특별전을 마련한다.

비엔날레전시관 5전시관에서는 디자인 페어 '10년 후 새로운 정상'을 연다. 저성장장과 기후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디자인 제품들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전시작품은 모두 구입할 수 있다.

국내의 전문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들'에 대한 담론의 장도 펼쳐진다. 9일부터 이틀간 '미래들'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조선대에서는 디지털융복합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디자인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열린다. 스타트업 전시, 벤처창업컨퍼런스와 함께 8일부터 15일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트콜라보 제품 전시, 지역 우수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자인 마켓 등을 포함한 '디자인 비즈니스라운지'가 열린다. 문의 062-611-50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아시아 더 퓨처'에서 선보일 '아시아 하모니 500개의 등'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동훈 총감독 인터뷰

**“디자인은 쓰는 사람이 주인
가치·의미까지 포함
미래 통해 역할·비전 고민”**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 봅시다. 특히 디자인이 그려보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통해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동훈 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학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감독은 17명의 큐레이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감독 선임이 늦어져 전시를 준비하는 데 벅하다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 전문가 등 관객층이 워낙 넓어 기획하는 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와 쇼룸 등이 테마인 2관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늘 쓰던 자동차, 늘 하던 쇼핑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거든요.”

장 감독은 또 신기술, 친환경 등 중요 이슈를 재해석하고 에너지, 자동차 등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소개도 담았다고 말했다.

“예전의 디자인이 예쁘고 편리한 점에 100%를 뒀다면 지금은 그 비중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현대적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함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일반 미술작품과 달리 디자인은 쓰는 사람, 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디자인은 사용자의 숨겨진 욕구를 찾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아우릅니다.”

장 감독은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각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렸다”며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들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면 흥미로운 작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갤럭시의 노트, Tab, 기어 시리즈 디자인을 총괄한 장 감독은 삼성전자 부사장(디자인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SAD(삼성디자인 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3D프린팅 하우스 제작키트로 집 만들어 보고
로봇과 게임 대결하고 가상현실 미래쇼핑 체험**

체험프로그램

가상현실(VR)에서 미래 쇼핑체험, 3D프린팅으로 집 만들기, 로봇과 게임 대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1~2관에서는 네덜란드 폰티스 아카데미의 VR체험, 에코라이트의 '해파리잡기', 건국대팀의 '농작물 키우기' 관찰, 미래 소풍라이프 존에서는 VR(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미래쇼핑라이프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3D프린팅 체험을 위한 프린팅 랩(Printing LAB)을 운영하고, 3D프린팅으로 제작한 하우스 제작키트를 이용해 직접 집을 조립해 완성할 수 있는 '플레이하우스'도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4차 미디어아트'전에서는 로봇과의 게임 대결,

신기술을 응용한 미디어아트 체험 등도 가능하다.

5전시관에서는 '이끼디퓨저 만들기'를 비롯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공기청정기 만들기 ▲공기청정기 만들기 ▲나만의 점프 선인장 만들기 등 체험 워크숍이 열린다.

또 전시관 광장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체험장'을 운영하고, 5전시관에서는 '여러나라 농부들의 냉장고 없는 부엌 이야기', '비와 함께하는 지구의 하루' 등 작가가 함께 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한다.

학생 단체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캐릭터 피규어 만들기, 3D프린팅 하우스만들기, 예코백 제작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아시아 각국의 전통 소재와 기술, 디자인이 어우러진 '체어콜렉션'을 마련, 관람객들이 직접 앉아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
E
R
V
I
C
E
S
F
U
T
U
R
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미래들'